

“광주는 어딜 가도 갤러리와 미술이 있더군요”



대인시장 미테-우그로 레지던시 '태국과의 인연'

광주 문화환경에 감동한 태국 교수들
4년째 장학금 마련해 제자들 보내와
참여 대학생 “시장 등서 작품활동 인상적”

9일부터 보고전

지난 2009년 광주 대인시장에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가 문을 열었다. 미테우그로는 ‘교류’를 강조하면서 개관 직후부터 세계 각국 예술가들과 만났다. 그해 대만, 네덜, 태국 등 해외 각국의 작가들이 미테-우그로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다.

그때 미테-우그로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태국 각지의 예술대학 교수 6명은 광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교수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광주가 제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수들은 이듬해부터 각 학교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해

마다 미테-우그로 레지던시에 한 달 일정으로 제자들을 보내오고 있다. 광주의 예술 환경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지난해 18일 광주를 찾은 사리나 샷폰(여·22·방콕 쉐라파견 예술대학), 자민 탐틴차이(여·22·마하사라캄 예술대학), 닛타퐁 동차런(21·콘겐 예술대학)은 태국 3곳의 대학에서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미테-우그로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9일부터 전시 공간 ‘미테’에서 보고전을 연다.

6일 대인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출지 않으나”는 질문에 “으으으”라고 답하며 웃었다. 특히 “길에서 사먹는 붕

어빵과 막걸리, 비빔밥, 치킨이 맛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방문 첫주에는 미테-우그로에서 활동하는 작가, 큐레이터들과 함께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등 미술관과 예술의 거리에 있는 갤러리를 둘러봤다. 대인시장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다다’의 작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무등산 등 지역의 명소를 찾기도 했다.

사리나 샷폰은 “양국 예술가들이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태국의 젊은 작가들은 대부분 작업을 자신의 집에서 하는데 광주 작가들이 시장 등에 작은 공간을 얻어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광주에는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며 “태국에는 없는 대인예술시장 같은 공간도 큰 즐거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퍼포먼스를 전공하고 있는 사리나 샷폰은 머리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광주 곳곳을 둘러봤다. 일정한 동선을 정해놓고 그 길을 40차례 걸으면서 사

진과 동영상으로 광주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그녀의 작업이다.

자민 탐틴차이는 미술관, 갤러리, 무등산 등 가는 곳마다 셀카 카메라를 찍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했다. 그녀는 “아직 광주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태국보다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며 “‘셀카’들을 모아 조각 작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리믹 아트를 전공하는 닛타퐁 동차런은 “광주는 어디를 가더라도 갤러리와 미술을 만날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그림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전시에서는 드로잉을 통해 내가 처음 접한 것들과 나를 연결하는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테우그로 조승기 대표는 “2009년 인연을 통해 광주 작가들도 태국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국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9일부터 열리는 전시에서는 태국의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광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달 일정으로 광주에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태국 대학생 사리나 샷폰(왼쪽부터), 자민 탐틴차이, 닛타퐁 동차런.

아시아 유물·작품 4만여점 공개

美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세클러 갤러리



스미스소니언이 소장중인 고려청자.

미국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세클러 갤러리가 일만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아시아 유물 및 작품 4만여 점을 발굴해 홈페이지(<http://www.asia.si.edu/collections/korean.asp>)에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아시아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립 프리어·세클러 미술관이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3000년 된 청동 호랑이에서 부채, 목판화, 수목화, 도자기 등을 망라해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수집된 4만691점이다. 이 가운데 각종 수목화와 고려청자, 조선 불화, 병풍 등 한국 작품도 781점이 포함됐다.

대부분 소장품 기부를 통해 미술관 설립에 일조한 디트로이트 출신의 철도차량 제작업자 찰스 랭 프리어와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인 아서 미첼 세클러가 기증한 것이다.

경제 정선의 작품도 한 화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5점 소개돼 있으나 설명서에는 진품이 아닌 ‘모조품’(forgery)으로 표기돼 있다.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측은 전문 큐레이터 등을 통해 새로 공개된 한국 미술품의 문화적·예술사적 가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술 작품의 디지털화는 분류, 사진 촬영, 색 보정, 데이터베이스화, 작품 설명 부착 등의 어렵고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프리어·세클러 갤러리도 전문가 54명이 동원돼 총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끝에 ‘디지털 컬렉션’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새해, 복을 부르는 그림과 함께



찰스장 작
‘Happy sheep’

행촌미술관, 2월 27일까지

옛 사람들은 연초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린 그림인 세화(歲畵)를 서로 주고 받았다. 십장생도를 비롯해 모란도, 신선도 등을 그려 연초에 서로 선물하며 이를 대문 등에 붙였다. 원래 세화는 왕실에서 시작됐으나 점차 민간으로 확산됐다. 연하장의 시조이기도 하다.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 행촌미술관(관장 김은숙)이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 기획전 ‘세화-복을 부르는 그림’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오는 2월27일까지.

행촌문화재단은 해남중합병원 설립자로 예술인들과 깊은 교유를 나눴던 고(故) 행촌 김제현 박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전시에는 행촌 김제현 박사와 특별한 교분을 나눴던 숙당 배정래, 제강 안태원, 농전 김철수, 김대성 등이 고인에게 보내온 1979년(기미년) 세화작품이 공개된다. 또 김상철·김주호·김익·김철수·신태수·성태진·안해경·윤남웅·이이남·이인성·이정준·주대희·최석운·찰스장·탁영호·홍지운씨 등 20여명의 작가들이 그린 올미년 세화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문의 061-536-411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요일 무료 클래식 강좌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13일부터 이진실 교수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이 이진실 교수와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을 진행한다.

목포대 음악학과 명예교수인 이씨는 정년퇴임 후 재능 기부 형식으로 클래식 강좌를 꾸준히 열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대학에서 이 교수는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가르쳤다.

강의는 오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7시~9시) 교육원 대강당 화원에서 열린다. 서양문화의 전체적 흐름, 역사적 배경이 음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시대별, 영역별, 작곡가별 음악을 함께 공부한 후 음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누구나 무료 참여. 홈페이지(www.kccei.com). 문의 062-380-2210~5. /김미은기자 mekim@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300가지 외원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식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soo.com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